

제목: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복은 사람"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11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아름답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흠어진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항상 \_\_\_\_\_ 하라고 하십니다.
2. 영력을 전부 하나님께 \_\_\_\_\_ 고 하십니다.
3. 늘 \_\_\_\_\_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운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부활절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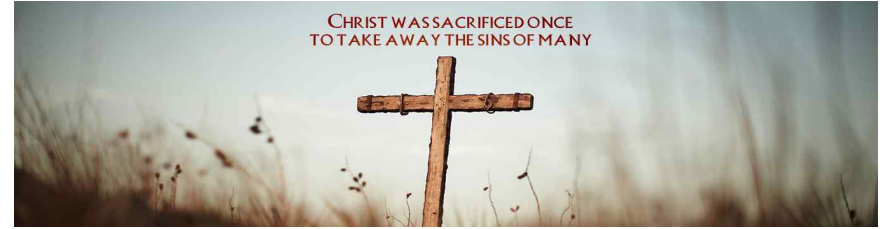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베드로전서 5장 6-11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1 Peter 5: 6-1 신약 384 페이지 Presider
- 말씀 .....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복한 사람" .....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누가 주방장인가?)

모처럼 한국 음식점을 찾아갔다. 외식을 하고는 싶은데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감자탕이 먹고 싶어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한국 음식점을 찾아 간 것이다. 그런데 꽤 큰 한국 식당이지만 기대를 했던 것 같이

한국 사람이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조금은 기분이 썰렁했다. 한국 음식점에 한국 사람이 없고 주방에도 분명히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한국 음식점에 한국 사람들이 요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어떻게 하라? 먹고 싶어서 내 발로 찾아온 것은 나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계획했던 대로 감자탕을 시켰다. 그리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 눈이 꽤나 부리부리하고 머리를 뒤로 뺨뺨하게 묶은 50대 후반의 한국 아주머니였다. 나는 나의 눈을 의심했다, 다시 몇 번을 쳐다보니 한국 사람이 분명하다.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모른다. 앞에 앉은 아내에게 흥분된 소리로 한국 사람이 주방에 있다고 외쳤다. 음식이 준비되어 먹는데 기분도 좋았고 맛도 있었으며 돈이 아깝지 않은 저녁식사를 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하니 나도 꽤나 한국적인 생각이 변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다. 잘 배운 다른 민족 사람이 한국음식을 만들어도 잘하지 않겠는가?

음식점에 한국 아주머니를 갑자기 만나도 그렇게 기쁘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 중심에서 만날 때에 얼마나 기쁠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교회의 주방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 볼 때에 얼마나 안심하고 행복하겠는가?

하나님 없는 교회에 맛이 나겠으며 성령의 은혜가 샘솟지 않는 인생의 생활이 어떨겠는가? 맛이 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는 세상의 음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리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입고 사는 성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안에 계시는지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고 또 안전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시편 104편 14절)라는 시인의 고백을 들려주신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잊을 때에 성도와 교회의 맛과는 거리가 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주방장은 누구이고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 끊이지 않도록 힘을 다하자. 그렇게 할 때에 세상에서 빛 그리고 소금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안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은 부활의 성도들이 아닌가?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종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4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5. 2/3월 행사

부활주일	오늘	예배 시
목자훈련	오늘 친교 후	예배실
4월 목장 모임	4월 23일 주간	각 모임 장소

###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